



MVPR-2008-17

VIP REPORT

2008. 4. 29.

- 서비스산업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 보완 과제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유 병 규
편집위원 : 이부형, 백흥기, 현석원, 허만울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030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01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서비스산업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 보완 과제

Executive Summary	i
1. 경제성장과 서비스산업	1
2. 서비스산업 경쟁력 분석	4
3. 시사점 및 대응방안	20
■ HRI 경제 지표	24

1. 경제성장과 서비스산업

선진국의 경우 경제발전에 따라 성장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편적이거나 한국은 2000년 이후 서비스산업의 성장 기여도가 오히려 급감하고 있다. 1970년대와 2000년대의 평균 경제성장 기여율을 비교하면, 제조업은 26.0%에서 44.3%로 상승한 반면, 서비스산업은 48.1%에서 40.3%로 7.8%p 감소하여 제조업 기여도에 역전되었다. 성장 기여율의 역전은 제조업 GDP 증가율의 경우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지만, 서비스업의 GDP 증가율은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간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소득 단계별로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1만 달러 시점과 2만 달러 시점 사이에 고용 격차는 줄어드나 부가가치 격차는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한국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도 선진국 경제로 성장하려면 서비스산업의 성장 기여율을 높여야 하고, 제조업처럼 서비스산업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기도 함을 인식해야 한다.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려면 한국의 제조업이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스타업종이 연관 산업을 견인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였듯이, 서비스산업에서도 서비스산업을 견인할 선도 서비스업종과 글로벌 서비스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2. 서비스산업 경쟁력 분석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거시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산업별로 발전 정도의 격차가 심하여 업종별 차별화 육성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거시 종합 분석

(주요국 대비 낮은 서비스산업의 비중) 각국의 전체경제에서 서비스업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율을 비교하면,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57.2%로 OECD국가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미국, 76.0%, 영국, 76.2%, 프랑스, 77.2% 등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이미 70%를 상회하고 있다. 업종별로도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주요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업서비스업이 12.5%,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9.8%로 서비스산업이 선진화된 비교국 평균과 1.5배 정도의 격차(각각 20.9%, 13.3%)를 보이고 있다.

(고용은 늘고 있으나 1인당 부가가치는 매우 저조) 서비스산업이 전체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1인당 부가가치는 매우 미약하다. 2001년 대비 2006년 기준으로 제조업의 고용은 2.3% 감소한 반면, 서비스산업은 13.5% 증가하였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전산업 평균에 못 미치는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서비스산업 1인당 부가가치는 2000년 이후 단 한 번도 전산업 평균을 초과하

지 못했고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전산업 평균 1인당 부가가치와 서비스산업의 격차는 2001년 96만 원에서 2006년 255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제조업과의 격차도 계속되고 있는데 2006년 기준으로 제조업은 5,062만 원, 서비스산업은 3,002만 원으로 서비스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고용은 증가하나, 부가가치가 부진한 주요원인은 영세한 규모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달리, 도소매업의 경우 고용은 감소하면서, 1인당 부가가치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의 확산으로 영세 도소매업이 대형화와 전문화를 실현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잠재력이 미약한 상태)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전산업과 제조업 평균에 비해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특히, 제조업은 2003년부터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반면, 서비스산업은 2002년부터 축소 또는 보합상태로 성장잠재력 축적이 미흡하다. 그 결과 한국 서비스산업의 R&D 지출은 세계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주요국 R&D 지출의 서비스산업 비중을 보면, 한국은 6.9%로 미국, 36.1%, 영국, 21.1%는 물론, 전통적 제조업 강국인 일본, 9.1%, 독일, 8.3% 보다도 낮다.

○ 산업별 분석

산업별 분석을 위해 고용, 부가가치, 매출액,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회전률, 총자본투자효율 등 6개 부분을 현수준(level)과 변화(change)로 나누어 업종별로 분석하였다.

(급속성장 분야: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사업서비스업과 통신업은 급속성장 분야로 분석된다. 사업서비스업은 고용, 매출액, 총자산회전률 등의 현수준도 양호하고, 매출과 이익 증가율도 타업종을 상회하고 있었다. 통신업은 현수준은 보통이나 매출액과 이익률 증가율이 양호하였다. 두 업종 모두 부가가치가 크고, 미래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

(저속성장 분야: 운수업, 부동산업) 운수업 및 부동산업은 완만한 성장단계로 분석된다. 두 업종은 1인당 부가가치 수준이 높고 매출액 증가율 또한 높지만, 부가가치 증가율은 한계에 도달한 모습으로 시장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성숙단계로 분석된다.

(성장정체 분야: 도소매업) 도소매업은 성장 정체단계에 진입한 업종으로 판단된다. 현수준(level)은 고용, 매출액, 회전율 등이 서비스산업 평균을 상회하나, 이들 지표의 증가율(change)이 서비스산업 평균에 못 미치는 정체현상이 뚜렷했다. 이는 최근 10여 년 간 도소매업의 대형화, 전문화, 업태다각화를 통한 고속 성장세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미성장 분야: 음식·숙박업) 음식·숙박업은 미성장 분야로 분석된다. 음식·숙박업은 현수준에서는 고용을 제외한 전부분이, 증가율에서는 모든 부분이 업종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주요 원인은 공급측면에서는 대형화, 체인화가 부족하여 다수의 영세사업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수요측면에서는 국내외 관광, 레저 등에서 충분한 수요가 창출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 시사점 및 대응방안

국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려면 전반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책과 산업별 차별화 대책이 함께 구체화 되어야 한다.

○ 거시적 육성 정책

(첫째, 외형확장을 위한 서비스산업 규모 확대) 50%대에 머물고 있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확대를 통해 공급을 견인해야 한다. 내수를 활성화하고, 공공분야의 서비스 아웃소싱을 확대하며, 고급 서비스 수요를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 및 운영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둘째, 내실확충을 위한 1인당 부가가치 증대) 제조업의 60%수준인 1인당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업종 부가가치를 높이고, 양질의 인력을 육성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예로써 OECD 선진국의 경우 지난 10년 간 서비스산업의 IT활용도를 높여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셋째, 질적발전을 위한 R&D지출 확대) 6.9%로 세계 최저 수준인 서비스산업 R&D지출 비중을 높여 근본 경쟁력을 확충해야 한다. 2007년 한국의 연구개발 예산은 10억 달러를 돌파하였는데, 현재 연구개발예산이 100억 달러 이상인 국가는 선진 경제대국인 5개국과 중국, 캐나다를 포함해 7개국뿐이다. 특히, R&D 효과가 크고 제조업 경쟁력과 연관이 깊은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에 대한 R&D지출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 산업별 차별화

(사업서비스업과 통신업은 집중육성) 미래 산업이면서, 선진국과 격차가 크고, 전후방 산업효과가 큰 사업서비스업과 통신업은 집중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들 업종의 R&D 지출을 확대하고, 생산성이 높은 우수한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체계와 인센티브 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인도가 우수한 IT서비스 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부동산업과 운수업은 M&A와 대형화 유도) 부가가치 증가율이 낮은 두 업종은 최소한의 정책적 관여를 유지하고, 시장자율에 맡겨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M&A 활성화를 통한 대형화와 체인화를 유도하여 영세성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도소매업은 경쟁력 유지강화) 현재 대형화와 전문화가 추진되고 있는 도소매업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업체간 경쟁을 통한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음식·숙박업은 보호육성) 미성장분야인 음식·숙박업에 대한 보호육성 방안이 필요하다. 관광 및 레저산업과 연계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세계혜택을 제공하여 가격경쟁력을 확충하는 등의 정책적인 육성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서비스산업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1. 경제성장과 서비스산업

- 경제발전애 따라 성장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편적이거나 한국은 2000년 이후 서비스산업의 성장 기여도가 오히려 급감
 - 1970년대 대비 2000년대 기준으로 제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6.0%에서 44.3%로 상승한 반면, 서비스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7.8%p 감소하여 제조업 기여도에 역전됨
 - 1981~1990년 대비 1991~2000년 기준으로 서비스산업의 성장 기여율은 미국 72.3%→82.3%, 일본 60.8%→94.1%, 영국 63.4%→82.9%로 증가함¹⁾

< 제조업, 서비스산업의 국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 >

구분	1971~1980년	1981~1990년	1991~2000	2001~2005년
제조업	26.0%	25.7%	33.1%	44.3%
서비스업	48.1%	49.5%	49.8%	40.3%

자료: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 성장 기여율의 역전은 제조업의 GDP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지 만, 서비스업의 GDP 증가율은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간 계속되었기 때문
 - 지난 30년간 제조업의 GDP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항상 초과하여 전체 경제성장을 견인한 반면, 서비스업의 GDP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 하여 전체 경제성장을 저하시킴

< 경제성장률 및 산업별 GDP 증가율 변화 추이 >

구분	1971~1980년	1981~1990년	1991~2000년	2001~2005년	
경제성장률 (A)	7.13%	9.02%	5.72%	4.74%	
제조업	GDP 증가율 (B)	16.05%	12.04%	7.97%	7.80%
	B - A	8.92%p	3.02%p	2.25%p	3.06%p
서비스업	GDP 증가율(C)	6.00%	8.48%	5.60%	3.79%
	C - A	△1.13%p	△0.54%p	△0.12%p	△0.95%p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1) 한국개발연구원, 『산업부문별 성장요인분석 및 국제비교』, 2004.12, [부표] 참조.

- 최근 '제조업 공동화', '고용 없는 성장', '세계 경제의 서비스화' 등으로 제조업 의존형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서비스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
 - 한국의 성장단계와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제반 위상을 고려할 때, 서비스산업의 비중이나 수출성과 등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걸맞지 못하고,
 -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경제 후생 증대를 위해 결코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2000년 초반부터 반복되고 있음
- 20세기 초부터 세계 각국의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점증하였고, 특히 선진국이 될수록 경제성장이 서비스산업에 의해 주도되는 현상이 뚜렷
 - 신흥공업국의 제조업 발전으로 이들과의 직접경쟁이 힘들어지고 있고,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제조생산보다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
 - 소득탄력적인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2만불 시대에 진입한 한국경제도 서비스산업을 통한 경제 성장과 국제 경쟁력 확보가 절실히 지고 있음

< 한미 산업별 고용과 부가가치 비율 추이 >

(단위 : 달러)

미국						한국					
년도	1인당 GNP	부가가치 ¹⁾		고용 ²⁾		년도	1인당 GNP	부가가치		고용	
		서비스	제조	서비스	제조			서비스	제조	서비스	제조
1977	9,135	54.7	21.6	66.1	26.9	1993	9,459	51.4	26.8	62.0	31.7
1978	10,205	55.2	21.3	66.0	26.6	1994	11,432	51.7	27.2	62.7	29.4
1980	12,127	56.1	20.0	67.6	25.0	1995	12,197	51.8	27.6	64.6	27.2
1981	13,510	56.1	19.7	68.4	24.4	1996	11,176	52.8	26.7	64.7	26.8
1982	14,063	57.4	18.5	70.2	22.9	1997	7,355	53.4	26.3	67.2	24.6
1983	14,937	59.1	18.5	70.1	23.0	1998	9,438	54.2	27.3	69.1	24.1
1984	16,601	59.0	18.4	70.3	22.6	1999	10,841	54.5	28.1	69.3	24.5
1985	17,599	59.9	17.5	71.3	21.6	2000	10,159	54.4	29.4	69.8	24.5
1986	18,275	61.1	17.2	72.2	20.9	2001	11,497	56.3	27.6	70.5	24.2
1987	19,347	64.5	17.1	72.5	20.6	2002	12,717	57.5	26.9	71.2	23.2
1988	20,840	64.9	17.2	73.0	20.2	2003	14,206	57.2	26.4	71.2	23.2
1997	30,090	69.5	15.4	76.9	16.8	2004	16,413	55.6	28.6	71.2	23.1
2005	41,887	71.5	11.9	80.2	12.6	2005	18,401	56.3	28.4	71.3	22.8
2006	44,055	71.9	11.7	80.5	12.2	2006	20,045	57.1	28.0	71.5	22.3

자료 :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한국은행

주 : 1) 부가가치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 2)고용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

- 소득 단계별로 미국과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을 비교해 보면, 고용격차는 감소하나 부가가치 격차는 확대
 - 1만 달러 돌파 시점 : 한국은 1994년, 미국은 1978년으로 부가가치는 3.5%p 고용은 3.3%p 차이를 보임
 - 2만 달러 돌파 시점 : 한국은 2006년, 미국은 1988년으로 부가가치는 7.8%p, 고용은 1.5%p 차이를 보임
 - 한국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 : 고용의 차이는 줄어들는데, 부가가치 차이가 확대되는 주요 원인은 한국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으로 판단됨

- 미국의 경우 3만 달러, 4만 달러로 이동하면서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됨
 - 한국도 상위소득 단계로 진입하려면,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을 확대해야하고,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규모와 생산성을 높여야 함

- 한국도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성장 기여율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내 업종별 경쟁력 파악 및 차별적 해법이 필수
 - 한국의 제조업도 전업종 균등성장이 아니라, 조선, 철강, 반도체, 디지털 가전 등 스타업종이 연관 산업을 견인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
 - 서비스산업에는 아직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한 업종과 개별기업이 없을뿐더러, 서비스산업을 견인할 선도 서비스업종도 마련되지 않았음

- 이하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경쟁력을 분석해 보고 현황을 진단하여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도출함

2. 서비스산업 경쟁력 분석

□ 거시 종합 분석

- (주요국 대비 낮은 서비스산업의 비중) 한국의 전체 경제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은 57.2%(2006)로 미국, 76.0%, 영국, 76.2%, 프랑스, 77.2% 등 OECD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서비스 산업내 업종별 격차도 큼
 - 경제의 서비스화²⁾: 대부분의 주요국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가 1995년 대비 2005년 상승한 것으로 미루어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 중
 - 평균 대비 운수·통신, 금융 및 보험은 양호: 2005년 기준으로 한국의 서비스산업 업종별 부가가치 비율을 주요국 평균과 비교하면, 운수·통신, 금융 및 보험은 평균을 상회하나, 다른 업종은 평균을 하회
 - 격차가 가장 큰 업종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은 2배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1995~2000년 동안 한국의 도소매·음식·숙박업의 하락폭(11.5%→9.8%)은 평균을 크게 상회

< 주요국의 서비스 업종별 부가가치 비율 >

(단위 : %)

	도소매·음식·숙박		운수·통신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기타서비스	
	2005	1995	2005	1995	2005	1995	2005	1995	2005	1995
호주	13.5	14.7	7.5	8.8	7.8	6.1	21.0	19.8	15.0	14.2
캐나다	13.8	13.4	6.9	7.3	7.3	6.6	18.2	17.6	14.2	14.8
프랑스	12.9	13.2	6.4	6.2	4.6	4.8	27.4	22.8	18.0	16.9
독일	12.2	12.3	5.9	5.7	5.0	4.6	24.3	21.8	16.4	15.5
일본	13.0	14.6	6.5	6.8	7.2	6.1	20.3	18.3	17.4	15.7
한국	9.8	11.5	7.3	6.6	8.4	6.9	12.5	11.5	12.0	9.9
네덜란드	14.5	14.8	7.1	6.9	7.4	6.3	20.0	17.9	17.3	15.3
스위스	15.3	-	6.4	-	13.8	-	17.4	-	8.7	-
영국	14.5	13.7	7.1	7.7	8.3	6.4	23.4	18.1	17.8	15.7
미국	13.1	13.3	5.6	6.4	7.9	6.8	24.3	21.9	16.5	16.0
평균	13.3	13.5	6.7	6.9	7.8	6.1	20.9	18.9	15.3	14.9

자료 : OECD, Factbook 2007.

주1 : 2005년의 경우 국가에 따라 2003~2005년의 데이터로 집계됨

주2 : 각국의 전체경제에서 각 서비스업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율로 계산

2) Wölfl(2005)는 경제의 중심이 재화를 생산하는 제조업에서 서비스를 생산하는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서비스 경제(Service Economy)' 혹은 '경제의 서비스화(Tertiarization)'라고 함

- (노동과 서비스산업) 노동측면의 서비스산업 업종별 비교를 위하여 노동투입(고용)과 노동 생산성(1인당 부가가치)으로 나누어 살펴봄
 - (종합) 서비스산업의 고용 효과는 증가하나 부가가치는 하락하는 추세이며, 서비스산업 간 업종별 차이가 뚜렷
 - 제조업의 고용은 감소, 서비스산업의 고용은 증가 하는 가운데, 특히 부동산 산업 및 사업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의 고용이 평균을 상회
 -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가 전산업 평균을 하회하는 가운데, 금융 및 보험업의 부가가치가 양호하고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취약
- (고용) 서비스산업이 전체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의 고용 효과가 두드러짐
 -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2001년 대비 2006년 기준으로 제조업의 고용은 4,267천 명에서 4,167천 명으로 2.30% 감소한 반면, 서비스산업은 15,140천 명에서 2006년 17,183천 명으로 13.50% 증가
 - 고용 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통신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서비스산업 가운데 통신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의 고용 인원이 급격히 증가
 - 통신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의 2001년 대비 2006년도의 고용 증가율은 각각 48.08%, 45.23%, 31.23%이며, 同期 해당부문의 고용은 약 73.9만 명 증가
 - 통신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을 제외하면 기타서비스(23.72%), 음식·숙박업(5.46%), 운수업(4.40%), 금융·보험업(3.42%)순이며, 금융·보험업은 최근 고용 성장률이 높아지는 추세
 - 고용 증가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도소매업: 조사대상 서비스산업 업종 중에서 도소매업의 고용이 유일하게 감소
 - 도소매업은 2001년 393.1만 명에서 2006년 371.3만 명으로 21.8만 명(-5.55%) 감소

< 고용자 수 및 증가율 >

(단위 : 천 명,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1 比 2006
전산업 (1.4)	21,156	21,572 (1.97)	22,169 (2.77)	22,139 (-0.14)	22,557 (1.89)	22,856 (1.33)	23,151 (1.29)	1,579 (7.3)
제조업 (△0.5)	4,293	4,267 (-0.61)	4,241 (-0.61)	4,205 (-0.85)	4,290 (2.02)	4,234 (-1.31)	4,167 (-1.58)	△100 (△2.3)
서비스산업 (2.6)	14,602	15,140 (3.68)	15,842 (4.64)	15,967 (0.79)	16,427 (2.88)	16,788 (2.20)	17,183 (2.35)	2,043 (13.5)
도소매업 (△1.1)	3,833	3,931 (2.56)	3,991 (1.53)	3,871 (-3.01)	3,805 (-1.70)	3,748 (-1.50)	3,713 (-0.93)	△218 (△5.55)
음식·숙박업 (1.1)	1,919	1,943 (1.25)	2,007 (3.29)	1,981 (-1.30)	2,057 (3.84)	2,058 (0.05)	2,049 (-0.44)	106 (5.46)
통신업 (8.2)	192	208 (8.33)	231 (11.06)	249 (7.79)	248 (-0.40)	279 (12.50)	308 (10.39)	100 (48.08)
사업서비스업 (7.8)	1,010	1,149 (13.76)	1,251 (8.88)	1,303 (4.16)	1,461 (12.13)	1,540 (5.41)	1,669 (8.38)	520 (45.26)
부동산업 (5.6)	351	381 (8.55)	413 (8.40)	423 (2.42)	453 (7.09)	497 (9.71)	500 (0.6)	119 (31.23)
운수업 (0.9)	1,068	1,114 (4.31)	1,140 (2.33)	1,084 (-4.91)	1,128 (4.06)	1,149 (1.86)	1,163 (1.22)	49 (4.40)
금융·보험업 (0.7)	752	760 (1.06)	734 (-3.42)	751 (2.32)	738 (-1.73)	746 (1.08)	786 (5.36)	26 (3.42)
기타 서비스업 (4.3)	5,477	5,654 (3.23)	6,075 (7.45)	6,305 (3.79)	6,537 (3.68)	6,771 (3.58)	6,995 (3.31)	1,341 (23.7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괄호는 전년대비 증가율, 구분 아래 괄호는 연평균 증가율

○ (1인당 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전산업 평균에 못 미쳐 전반적으로 부진하지만, 금융·보험업의 경우 부가가치 증가가 두드러짐

- 증가하나 증가속도는 감소 : 서비스산업 1인당 부가가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4년 급락한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
 - 서비스 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2001년 2,453만 원에서 2006년에는 3,002만 원으로 22.38% 증가
 - 그러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1년, 2002년, 2003년 각각 6.69%, 6.38%, 6.65%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4년 2.20%로 급락함
 -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2.51%와 2.95%를 기록함

< 1인당 부가가치 및 증가율 >

(단위 : 만 원,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1 比 2006
전산업 (5.0)	2,430	2,550 (4.93)	2,716 (6.52)	2,890 (6.40)	3,078 (6.52)	3,157 (2.55)	3,257 (3.18)	827 (34.0)
제조업 (7.3)	3,523	3,557 (0.96)	3,819 (7.37)	4,022 (5.34)	4,628 (15.06)	4,835 (4.46)	5,062 (4.71)	1,539 (43.7)
서비스 산업 (4.1)	2,299	2,453 (6.69)	2,610 (6.38)	2,783 (6.65)	2,844 (2.20)	2,916 (2.51)	3,002 (2.95)	703 (30.6)
도소매업 (4.8)	1,062	1,095 (3.05)	1,120 (2.33)	1,170 (4.42)	1,238 (5.86)	1,307 (5.57)	1,381 (5.68)	287 (26.19)
음식·숙박업 (2.9)	774	833 (7.55)	895 (7.41)	924 (3.31)	896 (-3.11)	917 (2.40)	963 (4.99)	130 (15.59)
운수·통신 (3.3)	2,868	3,116 (8.63)	3,292 (5.66)	3,585 (8.90)	3,704 (3.33)	3,672 (-0.88)	3,658 (-0.36)	543 (17.41)
사업서비스업 (1.9)	2,621	2,393 (-8.70)	2,573 (7.55)	2,689 (4.50)	2,560 (-4.81)	2,602 (1.66)	2,628 (1.00)	236 (9.85)
부동산업 (△1.4)	11,850	11,170 (-5.74)	10,807 (-3.25)	11,055 (2.30)	10,735 (-2.90)	10,142 (-5.52)	10,394 (2.48)	△776 (△6.95)
금융·보험 (7.8)	4,688	5,582 (19.06)	7,472 (33.86)	7,549 (1.03)	7,760 (2.79)	8,108 (4.49)	8,138 (0.37)	2,556 (45.79)
기타서비스 (3.3)	2,569	2,804 (9.14)	2,864 (2.13)	3,085 (7.73)	3,173 (2.86)	3,223 (1.58)	3,305 (2.53)	501 (17.86)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괄호는 전년대비 증가율, 구분 아래 괄호는 연평균 증가율

- 전산업 평균에 못 미치는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서비스산업 1인당 부가가치는 2000년 이후 단 한 번도 전산업 평균을 초과하지 못함
 - 서비스 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2006년 3,002만 원으로 제조업 5,062만 원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전산업 평균 1인당 부가가치와 서비스산업의 격차는 2000년 131만 원에서 2001년 96만 원으로 격차를 줄였으나, 이후 격차는 다시 확대되어 2006년에는 255만 원을 기록
- 부가가치 증가가 큰 업종: 서비스산업 중 부가가치 증가가 큰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과 도소매업
 - 도소매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2001년 1,095만 원에서 2006년 1,381만 원으로 26.2% 증가하였고, 특히 2005년(5.57%)과 2006년(5.68%)의 증가속도가 빠르

게 나타남

- 그러나 도소매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음식·숙박업의 1인당 부가가치와 함께 서비스업종 가운데 여전히 매우 낮은 쪽에 속함
- 금융 및 보험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2001년 5,582만 원에서 2006년 8,138만 원으로 서비스업종 중 가장 큰 증가세(45.52%)를 보였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3년 1.03%로 급락한 이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함
- 한편 금융 및 보험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서비스 전 업종 중 가장 높음

- **부가가치가 감소하는 업종:** 부동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2003년과 2006년을 제외하고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임
 - 부동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2000년 1억 1,850만 원에서 2001년 1억 1,170만 원(5.74% 하락)으로, 2002년에는 1억 807만 원(3.25% 하락)으로 감소하다가 2003년 증가함
 - 2003년 1억 1,055만 원(2.30% 상승)을 기록한 이후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1억 735만 원(2.90% 하락)과 1억 142만 원(5.52% 하락)으로 감소함
 - 이는 2000년 초반 부동산 경기과열과 침체, 그리고 경기변동성이 큰 부동산업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성장잠재력 지표)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전체 산업과 제조업 평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통신과 사업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출액 대비 1% 미만으로 성장잠재력 발굴에 소극적임

- 2002~2006년 동안 서비스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0.5%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5년간의 평균도 0.43%로 제조업의 1.21%에 비해 극히 낮음
 - 연도별로도 제조업은 2003년부터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반면, 서비스산업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축소됨
- 2002~2006년 동안 사업서비스업과 통신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의 평균은 각각 2.01%와 1.59%로 제조업과 전산업 평균치를 상회
 - 그러나 통신 업종의 경우 2003년 이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연구개발비³⁾/매출액 - 5년 평균 >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 比 2006
전 산업	0.95	1.06	1.16	1.09	1.19	1.09
제조업	0.85	0.78	0.88	1.72	1.84	1.21
서비스산업	0.52	0.49	0.4	0.31	0.41	0.43
도소매업	0.32	0.19	0.1	0.02	0.14	0.15
음식·숙박업	0.03	0.04	0.12	0.16	0.03	0.08
통신업	1.47	2.16	1.69	1.38	1.27	1.59
사업서비스업	2.27	1.73	1.94	1.84	2.25	2.01
부동산업	0.05	0.16	0.01	0.01	0.01	0.05
운수업	0.11	0.2	0.02	0.14	0.05	0.10
기타서비스업	0.23	0.23	0.5	0.04	0.13	0.23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 : 2002 比 2006은 2002~2006년 5년 평균

< 업종별 연구개발 수행방식 >

(단위: 전체기업 중 비중, %)

	연구소 운영	전담부서 운영	비상시적 수행	수행않음
도소매업	2.0	4.0	4.2	89.8
운수업	0.4	1.0	5.6	93.0
통신업	12.4	10.7	7.4	69.4
금융업	1.2	4.9	11.5	82.3
정보처리업	38.0	15.6	13.1	33.3
연구개발업	69.9	15.0	2.3	12.7
경영서비스	5.7	3.8	8.1	82.4
기술서비스업	11.9	5.5	13.8	68.9
광고업	6.0	7.0	10.5	76.5
영화/방송업	1.5	9.4	10.6	78.5
서비스업 전체	8.8	5.8	7.7	77.7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 서비스부문』

3) 연구개발비는 대차대조표 상 당기의 개발비 무형자산의 증분과 손익계산서 상의 연구개발비와 개발비상각 및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경상개발비를 합산한 것임

- 서비스업체의 77.7%는 연구개발 활동 **全無**: 과학기술 정책연구원(2006)에 따르면 서비스업체의 22%만이 상시적, 비상시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
 - 기술적 속성이 강조되는 연구개발업(87.3%), 정보처리업(66.7%)만이 연구소/전담부서 운영, 비상시적 수행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도소매업(10%) 운송업(7%) 등의 연구개발 수행 비율이 낮음

< 주요국 R&D 지출의 산업별 비중 (2005) >

(단위 : %)

	고기술제조업	중기술제조업	저기술제조업	서비스산업
아이슬랜드	25	6.8	5.8	59.7
호주	12.1	17.9	15.6	41.1
아일랜드	38.2	13.6	9.1	38.7
캐나다	37.5	9.5	11.3	37.9
체코	11.5	40.8	9	36.9
미국	40.3	16.6	6.4	36.1
노르웨이	15.6	16	17.8	35.3
그리스	32.4	18.1	13.3	34.2
덴마크	37.9	17.4	10.2	33.3
멕시코	9.7	21.8	35.1	32.6
스페인	24.7	26.9	17.1	25.6
G7	39.2	26.5	8.2	24.8
룩셈부르크	19.4	29.3	14.8	24.7
폴란드	19.4	30.6	13.5	24.7
이탈리아	34.8	30.7	9.3	24.4
영국	47.9	21.6	7.1	21.1
헝가리	55.4	18	5.7	18.9
네덜란드	39.4	28.5	9.4	18.3
오스트리아	39.2	23.7	16.2	18
벨기에	38.8	23.5	16.1	17.8
EU15	38.7	34.9	9.2	15
핀란드	55.2	16.2	11.7	14.5
터키	25.4	38.2	22.9	11.6
프랑스	44.7	30	11.6	9.4
일본	38	39	11.9	9.1
독일	30.6	53.4	7.1	8.3
한국	53	26.1	8.9	6.9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7.

주 : 국가에 따라 2003~2005년의 데이터로 집계됨

- **한국 서비스산업의 R&D 지출은 세계 최하위** : 주요국 R&D 지출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한국의 서비스산업 R&D지출은 6.9%로 세계 최하위 수준
 - 이는 제조업 강국으로 서비스 R&D지출 비중이 낮은 일본(9.1%), 독일(8.3%) 보다 낮은 수준
 - 미국(36.1%), 영국(21.1%) 등 서비스 경제가 발달한 나라들은 서비스산업 R&D지출 비중과 비교하면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서비스산업 R&D 취약의 원인** : 서비스산업 R&D활동이 미약한 것은 서비스산업의 R&D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연구개발이 강조되는 고부가 서비스업종의 미발달, 서비스산업의 영세성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음
 - **서비스산업 R&D에 대한 인식저조**: 한국은 제품개발 중심의 R&D 활동은 강조하나, 지식·문화 콘텐츠, IT서비스 등 서비스 R&D에 대한 인식은 저조
 - **고부가 서비스업종의 미발달**: 소프트웨어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체계적 R&D가 필요한 고부가 서비스업종이 발달되지 않아 '빈약한 R&D 지출과 낮은 부가가치'의 악순환을 지속
 - **서비스산업의 영세성**: 서비스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소매업, 운송업 등이 영세하고 자영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R&D 부족의 원인

□ 산업별 분석

- (성장성 지표) 서비스산업의 성장률은 전산업과 제조업의 평균 성장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나, 운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통신업의 성장률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서비스산업 성장세는 상대적으로 저조** : 2002~2006년 동안 서비스산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3.32%로 전산업(6.80%)과 제조업(7.42%)에 비해 저조함
 - 동기간 운수, 부동산, 사업서비스, 통신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8.72%, 6.96%, 6.43%, 4.02%를 기록함으로써 서비스산업 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남
 - 반면 도소매업(1.53%)과 음식·숙박업(2.50%)의 평균은 서비스산업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음

< 매출액 증가율⁴⁾ >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 比 2006
전산업	13,078.0 (7.27)	13,595.9 (3.96)	15,406.8 (13.32)	16,061.6 (4.25)	17,017.3 (5.95)	3,939.3 (6.80)
제조업	6,722.1 (10.21)	7,084.4 (5.39)	7,957.2 (12.32)	8,424.3 (5.87)	8,951.7 (6.26)	2,229.6 (7.42)
서비스산업	4,791.4 (6.78)	4,642.9 (-3.1)	5,062.6 (9.04)	5,157.7 (1.88)	5,460.5 (5.87)	669.1 (3.32)
도소매업	3,286.3 (6.45)	3,055.3 (-7.03)	3,303.7 (8.13)	3,309.6 (0.18)	3,492.3 (5.52)	206.0 (1.53)
음식·숙박업	44.1 (3.38)	41.5 (-5.97)	45.2 (8.98)	46.8 (3.51)	48.7 (4.08)	4.6 (2.50)
통신업	347.6 (6.5)	348.5 (0.25)	375.0 (7.62)	388.9 (3.71)	406.9 (4.62)	59.3 (4.02)
사업서비스업	407.0 (12.43)	439.4 (7.96)	462.7 (5.32)	476.9 (3.06)	522.1 (9.48)	115.1 (6.43)
부동산업	67.8 (28.4)	70.1 (3.35)	64.8 (-7.54)	73.8 (13.88)	88.8 (20.27)	21.0 (6.96)
운수업	525.3 (2.87)	568.8 (8.28)	671.5 (18.07)	708.1 (5.45)	733.9 (3.64)	208.6 (8.72)
기타서비스업	101.7 (18.84)	111.3 (9.5)	122.8 (10.31)	134.4 (9.4)	147.6 (9.85)	45.9 (9.76)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 : 괄호는 전년대비 증가율이고, 2002 比 2006 항목에서의 괄호는 연평균 증가율

- 2002년 반짝 성장후 성장세 둔화 : 2002년 단기 상승하던 서비스산업의 성장세가 근래에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2002년은 신용카드 활성화(카드대란)⁵⁾로 인하여 내수의 급격한 외형 증가가 있었던 시점으로 내수와 서비스산업의 강한 상관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2006년과 2002년을 비교하면, 운수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부 업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02년에 비해 낮아 서비스산업의 성장세 둔화로 판단됨

4) 매출액 증가율은 당기와 직전 연도 매출액의 차이를 직전 연도 매출액으로 나누고 100%를 곱해서 계산함

5) 2003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마이너스 성장세는 2003년 카드대란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

○ (수익성 지표) 서비스산업의 수익성은 전산업 평균에는 미달하나 제조업 평균에는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소매, 통신 업종은 서비스산업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2002년~2006년 동안 서비스산업의 총자산순이익률 평균은 4.4%로 4.1%인 제조업 평균을 0.3%p 상회, 전산업 평균인 5.3%에는 미달
- 그러나 2004년 이후 제조업의 총자산순이익률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서비스산업은 감소 추세가 뚜렷함

< 총자산 순이익률⁶⁾ >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5년 평균
전 산업	5.44	4.12	6.29	5.77	4.83	5.29
제조업	3.25	2.61	3.23	6.32	5.20	4.12
서비스산업	3.43	3.83	5.40	5.07	4.34	4.41
도소매업	4.43	5.81	6.36	5.21	3.88	5.14
음식·숙박업	1.90	0.66	1.09	1.49	3.75	1.78
통신업	5.68	4.23	5.25	6.38	6.08	5.52
사업서비스업	-0.92	1.14	3.17	5.91	5.99	3.06
부동산업	1.82	0.78	4.10	2.27	4.53	2.70
운수업	1.09	0.97	5.93	5.18	3.68	3.37
기타서비스업	4.57	3.91	4.26	4.35	3.92	4.20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업종별) 수익성이 양호한 업종으로는 통신, 도소매업을, 수익성 상승세가 양호한 업종은 사업서비스업과 음식·숙박업 등이 해당됨
- 통신, 도소매업의 총자산순이익률 5년 평균은 각각 5.52%와 4.41%에 달해 서비스산업 평균치를 상회함
- 사업서비스업과 음식·숙박업은 각각 2002년과 2003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으로써 성장잠재력이 가장 뚜렷한 업종으로 평가됨

6) 총자산 순이익률(ROA : Return on Asset)은 총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로 계산함

○ (운영 효율성 지표) 국내 서비스산업의 자산운영 효율성은 전산업과 제조업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소매업과 사업서비스업의 자산 운영 효율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2~2006년 동안 서비스산업의 총자산회전율 평균은 1.30배로 제조업의 1.26배보다 소폭 높게 나타남

· 과거 5년간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모두 총자산회전율이 둔화 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업들이 매출확대 전략에서 수익중심 전략으로 전환하였기 때문

< 총자산 회전율⁷⁾ >

(단위: 배)

	2002	2003	2004	2005	2006	5년 평균
전 산업	1.15	1.1	1.16	1.18	1.14	1.15
제조업	1.31	1.26	1.34	1.2	1.17	1.26
서비스산업	1.49	1.22	1.26	1.28	1.23	1.30
도소매업	2.67	1.82	1.9	1.76	1.63	1.96
음식·숙박업	0.33	0.3	0.33	0.3	0.3	0.31
통신업	0.59	0.61	0.66	0.71	0.73	0.66
사업서비스업	1.31	1.4	1.4	1.49	1.41	1.40
부동산업	0.39	0.38	0.46	0.35	0.5	0.42
운수업	0.79	0.86	0.97	1.19	1.16	0.99
기타서비스업	0.41	0.43	0.45	0.44	0.4	0.43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서비스산업 중 도소매와 사업서비스 업종의 과거 5년간 평균 총자산 회전율은 각각 1.96배와 1.40배로 서비스산업의 평균 총자산 회전율을 상회

· 그러나 동기간 사업서비스업의 총자산 회전율은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의 회전율이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내 내수경기 침체가 원인으로 추정됨

7)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산 대비 매출액의 비율로 계산한 것이며, 이는 주어진 자원(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를 측정함

○ (자본 생산성 지표) 국내 서비스산업의 평균 총자본 투자효율은 제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업서비스, 운수업 및 통신 업종이 서비스산업 평균을 상회함

- 2002~2006년 동안 서비스산업의 평균 총자본 투자효율은 27.22%로 제조업의 26.05%를 1.17%p 상회함

· 서비스산업의 총자본 투자효율은 2004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총자본 투자효율⁸⁾ >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5년 평균
전 산업	23.52	24.48	27.39	26.86	24.62	25.37
제조업	27.36	25.57	26.86	26.06	24.38	26.05
서비스산업	24.64	26.55	29.47	28.48	26.94	27.22
도소매업	19.9	21.88	23.89	20.82	18.97	21.09
음식·숙박업	14.87	13.31	16.59	16.05	17.6	15.68
통신업	29.19	30.21	29.17	30.98	28	29.51
사업서비스업	40.14	49.36	52.88	61.57	57.42	52.27
부동산업	16.15	17.8	21.57	12.74	19.53	17.56
운수업	29.08	31.75	39.65	44.84	44.71	38.01
기타서비스업	15.27	18.15	18.85	18.42	16.76	17.49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사업서비스, 운수업, 통신업의 과거 5년간 평균 총자본 투자효율은 각각 52.27%, 38.01%, 29.51%로 서비스산업의 평균을 상회함

· 과거 5년간 평균 총자본 투자효율이 높은 세부 업종 중에서 사업서비스와 운수업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통신업은 소폭 감소함

8) 총자본 투자효율은 총자본(총자산) 대비 부가가치 비율로 계산되며, 자원 단위 당 생산성으로 1인당 부가가치와는 차별화 됨

□ [참고] 금융부문 경쟁력 분석⁹⁾

- (수익성) IMF 이후, 금융·보험업의 수익성과 수익 효율성은 대폭 호전되었으나 미국 등 금융선진국과의 차이가 상존하고 수익 안정성이 낮음
- (은행) 국내 은행의 총자산 이익률(ROA : Return on Asset)은 1998년의 -3.3%에서 2005년에는 0.9%로 무려 4.2%p 상승
 - 2001년을 기점으로 국내 은행들의 총자산이익률은 영국과 일본을 초과하였으나 1.0%대의 수익성을 보인 미국 은행들에는 훨씬 못 미침
 - 선진국 은행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인 반면,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에는 높은 변동성이 따름
 - 단, 수익 효율성은 호전되고 있어 2005년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은 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본은 초과하였으나 미국과는 큰 차이가 있음
 - 1998 ~ 2005년 동안 국내 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은 0.6%p 증가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0.2%p와 0.1%p 감소함
- (증권) 국내 증권업은 선진국에 비해 수익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3월¹⁰⁾ 말 현재 국내 증권업의 총자산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은 각각 5.23%와 20.34%로 선진국에 비해 6.6%p와 8.9%p 정도 낮음
- (보험) 국내 보험사는 외국계 보험사에 비해 수익성 측면에서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장여력은 외국계 보험사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9월 말 현재 국내 보험사의 총자산이익률은 5.5%로 외국계 보험사에 비해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국내 보험사의 신계약률은 10.9%에 그쳐 외국계 보험사보다 3.2%p 낮게 나타남

< 주요 선진국과 국내 은행 수익성 비교 >

(단위: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ROA	한국	-3.3	-1.3	-0.6	0.7	0.6	0.2	0.9	0.9
	미국	1.1	1.3	1.2	1.2	1.3	1.4	1.3	1.3
	일본	-0.6	-0.5	0.2	-0.5	-0.7	-0.1	0.2	-
	영국	0.8	1.0	0.9	0.5	0.4	0.6	0.7	-
NIM ¹¹⁾	한국	2.3	2.2	2.3	2.3	2.5	2.6	2.8	2.9
	미국	4.3	4.2	4.2	4.0	4.1	4.0	4.0	4.2
	일본	2.0	2.0	1.8	1.8	1.8	1.7	1.7	1.8
	영국	2.7	3.0	3.2	2.5	2.3	2.6	2.6	2.8
비이자 총 이익	한국	-132.9	-7.7	2.5	18.7	17.4	14.5	18.5	12.6
	미국	40.4	43.0	43.1	42.5	42.1	43.8	42.4	42.8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재인용

○ (안정성) 2002년을 기점으로 국내 은행업의 부실채권비율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증권업과 보험업의 건전성은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침

- (은행) 2002년 이후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부실여신/총대출)은 3% 미만 수준까지 낮아져 선진국 수준에 진입함

· IMF 이후 국내 은행들은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부실채권비율을 6.4%p 감소함으로써 미국을 제외한 기타 선진국에 앞섬

- (증권) 국내 증권업의 낮은 집중도로 인한 경쟁 심화로 건전성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국내 증권업의 영업용순자본비율과 순유동자산비율은 665.3%와 16.0%로 선진국에 비해 각각 230%p와 17%p 낮은 것으로 나타남

9) 금융업은 자산구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기업과 동일한 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산기도 다르므로 서비스산업의 타 업종과 비교가 불가하여 본고에서 금융업에 대한 분석내용은 참고자료로 포함함

10) 국내 증권업의 결산월인 3월 말을 비교시점으로함

- (보험) 국내 보험사는 외국계 보험사에 비해 건전성 측면에서 위험가중 자산비율은 높은 반면 지급여력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 보험사의 위험가중자산비율은 41.3%로 외국계 생보사의 22.2%의 두 배에 달하지만, 지급여력비율은 242.3%로 외국계에 비해 60%p 정도 높은 수준

< 주요 선진국과 국내 은행 안정성 비교 >

(단위: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부실여신/ 총대출	한국	7.6	11.3	8.1	3.4	2.4	2.6	1.9	1.2
	미국	1.0	1.0	1.1	1.4	1.5	1.2	0.9	0.8
	일본	5.8	6.1	6.6	8.4	7.2	5.2	2.9	2.4
	영국	3.1	2.8	2.5	2.6	2.6	2.5	1.9	-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재인용

□ 산업별 분석 종합¹²⁾

- (종합) 업종과 노동효율 및 경영지표로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점수화한 결과, 사업서비스업과 통신업은 집중육성 분야, 운수업과 부동산업은 지속성장 분야, 도소매업은 성장정체 분야, 음식·숙박업은 미성장 분야로 묶임
 - 사업서비스업과 통신업 : 고용효과와 매출액, 총자산순이익률 등의 증가율이 기타 업종에 비해 양호하고, 부가가치(또는 증가율)가 높으며, 큰 폭의 미래 수요 확대가 예상되어 성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판단함
 - 부동산업과 운수업 : 1인당 부가가치 수준이 높고 매출액 증가율 또한 높지만, 부가가치 증가율은 한계에 도달한 성숙단계로 분류됨
 - 도소매업 : 평가 지표상으로는 성장정체 단계에 진입한 업종이나 고용효과가 크고 내수와 직결되어, 유지정책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됨

11) NIM: Net Interest Margin (순이자마진)

12) R&D지출 및 활동은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종에 따라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종합비교에서는 제외함

- 음식·숙박업 : 현수준에서는 고용을 제외한 전부분이, 증가율에서는 모든 부분이 업종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상태임

< 수준(level) 측면의 점수화 >

업종	고용	부가가치	매출액	총자산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률	총자본 투자효율	점수
도소매업	●	○	●	●	●	○	4
음식·숙박업	●	○	○	○	○	○	1
통신업	○	●	○	●	○	○	2
사업서비스업	●	○	●	○	●	●	4
부동산업	○	●	○	○	○	○	1
운수업	○	●	●	○	○	●	3
금융 보험 업	은행업	○	●	●	●	●	5
	증권업	○	●	●	●	●	5
	보험업	○	●	●	●	●	5

- 주 1. 절대치를 평가기준으로 상위 50%에 속하면 ●, 하위에 속하면 ○으로 표시하고 ●의 수로 점수화함
 2. 단, 금융·보험업의 경우 경영지표는 국제간 비교를 통하여 점수화함

< 변화(change) 측면의 점수화 >

업종	고용	부가가치	매출액	총자산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률	총자본 투자효율	점수
도소매업	○	○	○	○	○	○	0
음식·숙박업	○	○	○	○	○	○	0
통신업	●	○	●	●	○	○	3
사업서비스업	●	○	●	●	●	●	5
부동산업	●	○	●	●	○	○	3
운수업	○	○	●	○	○	●	2
금융 보험 업	은행업	○	●	○	●	●	4
	증권업	○	●	○	●	●	4
	보험업	○	●	○	●	●	4

- 주 1. 증가율을 평가기준으로 2001~2006년 동안 증가율이 서비스산업 평균증가율을 상회하면 ●, 하회하면 ○으로 표시하고 ●의 수로 점수화함
 2. 단, 금융·보험업의 경우 경영지표는 국제간 비교를 통하여 점수화함

3. 시사점 및 대응방안

○ 거시적 육성 정책

- (첫째, 외형확장을 위한 서비스산업 규모 확대) 50%대에 머물고 있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수활성화, 고급 서비스 수요 창출등으로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는 구조가 필요함
 - 내수활성화: 2002년 내수와 서비스산업 성장의 강한 상관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세액감면, 규제완화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여 서비스 수요를 확대
 - 고급 서비스 수요에 대응: 서비스 분야의 고급 수요를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와 운영규제를 완화하여 서비스수지 개선 및 고부가화 실현
 - 공공서비스 아웃소싱 확대: 공공서비스의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선진국처럼, 전기, 수도, 우정 등 공공서비스를 민간에게 개방
- (둘째, 내실확충을 위한 1인당 부가가치 증대) 제조업의 60% 수준인 1인당 부가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업종 부가가치를 높이고, 양질의 인력을 육성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함
 - 예로써 OECD 선진국의 경우 지난 10년 간 서비스산업의 IT활용도를 높여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킴
- (셋째, 서비스산업 R&D지출 확대) 서비스산업 육성의 선결과제는 세계 최저 수준인 서비스산업 R&D지출 비중을 높여 근본 경쟁력을 확충해야 함
 - 2007년 한국의 연구개발 예산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는데, 연구개발예산이 100억 달러 이상인 국가는 중국, 캐나다를 비롯한 7개국임
 - 그러나 연구개발예산 중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세계 최저 수준인 6.9%로, 서비스산업의 근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 비중을 높여야 함
 - 특히 R&D 효과가 크고, 제조업 경쟁력과 연관이 깊은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에 대한 R&D지출 확대가 시급함

○ 산업별 차별화

- (사업서비스업과 통신업은 집중육성) 미래 산업이면서, 선진국과 격차가 크고, 전후방 산업효과가 큰 사업서비스업과 통신업은 집중육성이 필요
 - 이들 업종의 R&D 지출을 확대하고, 생산성이 높은 우수한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체계와 인센티브 제도를 확충해야 함
 - 인도가 우수한 IT서비스 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임
- (부동산업과 운수업은 M&A와 대형화 유도) 시장화가 성숙되어 있고 지속성장 단계에 진입한 두 업종은 자율경쟁을 유지하고 대형화 유도
 - 최소한의 정책적 관여를 유지하고, M&A 활성화로 대형화와 체인화를 유도하여 영세성 한계를 극복
- (도소매업은 경쟁력 유지강화) 도소매업은 성장정체 단계에 진입한 업종이나 고용과 내수에 직결되어, 경쟁력 유지강화 정책이 필요한 분야로 판단됨
 - 고용효과는 크지만, 부가가치가 낮은 도소매업은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도모하고 프랜차이즈를 활성화하여 지속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유도
- (음식·숙박업은 보호육성) 미성장분야인 음식·숙박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보호육성 방안이 필요
 - 예로써 관광 및 레저산업과 연계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가격경쟁력을 확충하는 등의 정책적인 육성 방안을 모색 **HRI**

□ 작	성	이 주 량 연구 위원	(3669-4334, jryanglee@hri.co.kr)
		임 상 수 연구 위원	(3669-4125, happylims@hri.co.kr)
		이 만 용 연구 위원	(3669-4134, danieli@hri.co.kr)
□ 총	괄	유 병 규 산업전략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부표]

< 주요국의 산업별 성장기여도 국제비교 >

(단위 : %)

기간	국 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건설업	서비스업	합계
1981 ~ 1990년	한 국	3.78	0.17	33.95	2.46	12.33	47.32	100.00
	호 주	3.31	7.84	9.80	3.12	3.75	73.10	100.00
	벨기에	1.31	-1.49	30.60	2.92	-1.45	69.23	100.00
	캐나다	2.76	1.55	15.12	2.23	5.09	72.20	100.00
	독 일	-	-	-	-	-	-	-
	덴마크	6.28	3.17	9.14	3.42	-1.92	80.03	100.00
	핀란드	-3.70	0.54	22.18	2.49	5.63	70.95	100.00
	프랑스	2.02	-	7.72	4.43	2.43	84.94	100.00
	영 국	1.72	-0.88	16.01	1.84	8.51	63.38	100.00
	이탈리아	-1.30	0.64	16.17	1.41	2.64	80.55	100.00
	일 본	1.01	-0.23	27.07	2.67	8.77	60.77	100.00
	네덜란드	5.64	-2.03	20.16	1.54	1.55	73.66	100.00
	노르웨이	1.13	23.70	-2.26	2.34	3.47	59.44	100.00
	스웨덴	3.16	-0.21	16.53	5.70	4.31	70.50	100.00
미 국	2.34	0.68	15.89	2.51	2.35	72.32	100.00	
1991 ~ 2000년	한 국	2.28	0.19	43.71	3.43	3.19	47.21	100.00
	호 주	3.59	45.2	6.79	1.47	7.26	76.23	100.00
	벨기에	1.62	-0.05	24.48	7.49	4.39	63.62	100.00
	캐나다	0.90	2.75	29.18	1.66	0.12	66.06	100.00
	독 일	1.58	-1.84	-3.04	1.80	-0.43	101.73	100.00
	덴마크	4.45	4.58	12.98	3.09	3.23	71.53	100.00
	핀란드	2.93	-0.07	57.49	2.42	-7.47	50.80	100.00
	프랑스	3.72	-	24.97	2.58	-5.08	74.73	100.00
	영 국	0.24	3.02	7.16	2.49	-0.39	82.87	100.00
	이탈리아	3.55	-0.22	17.98	1.76	-0.19	76.76	100.00
	일 본	-4.17	-0.57	17.28	6.20	-12.86	94.07	100.00
	네덜란드	2.80	0.38	13.46	0.09	1.54	82.24	100.00
	노르웨이	1.8	21.69	3.90	1.39	1.14	68.70	100.00
	스웨덴	-0.87	0.01	58.23	-0.20	-3.70	50.72	100.00
미 국	1.77	-0.14	19.91	0.98	3.48	82.28	100.00	

자료: 산업부문별 성장요인분석 및 국제비교, 한국개발연구원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P)	2008(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7.0	3.1	4.7	4.2	5.0	5.0	5.1
	최종소비지출 (%)	7.6	-0.3	0.4	3.9	4.5	4.7	4.6
	민간소비 (%)	7.9	-1.2	-0.3	3.6	4.2	4.5	4.5
	총고정자본형성 (%)	6.6	4.0	2.1	2.4	3.2	4.0	5.8
	건설투자 (%)	5.3	7.9	1.1	-0.2	-0.4	1.2	3.8
	설비투자 (%)	7.5	-1.2	3.8	5.7	7.6	7.6	8.5
대 외 통 관 래 기 준	경상수지 (억 \$)	54	119	282	150	61	60	-50
	무역수지 (억 \$)	103	150	294	232	161	146	60
	수출 (억 \$)	1,625	1,938	2,538	2,844	3,255	3,715	4,110
	증가율 (%)	(8.0)	(19.3)	(31.0)	(12.0)	(14.4)	(14.1)	(10.5)
	수입 (억 \$)	1,521	1,788	2,245	2,612	3,094	3,568	4,050
	증가율 (%)	(7.8)	(17.6)	(25.5)	(16.4)	(18.4)	(15.3)	(13.5)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7	3.6	3.6	2.8	2.2	2.6	2.8
	실업률 (%)	3.1	3.4	3.7	3.7	3.5	3.2	3.0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253	1,192	1,145	1,024	955	929	960
	국고채금리 (평균 %)	5.8	4.6	4.1	4.3	4.8	5.2	5.3